

#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 : 27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에 유다 마카베어가

셀레우코스왕조 안티오코스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신전을 탈환하고 청소해, 제단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태양력 11~12월에 8일동안 축하하며 즐겼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머리카락 성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데 원인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하는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 듣고, 예수님 음성에 따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목자로 하지 않는 양은,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기에, 예수님 음성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외의 목자는 악마이고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하지 않는 양은, 예수님이 아닌 악마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번주 토요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기념일입니다.

서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의 습관을 따라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 「95개조」의 공개 질문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있는 개신교 교회의 루트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는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아무말 않고 그대로 놔두면 세속화 됩니다.

세속화가 되면,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실을 구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①오직 성경 ②오직 믿음 ③오직 은혜라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논쟁하고 개혁할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로마교회로부터 파문당함으로 로마교회와 결별하고, 독일에서 교회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운동은, 스위스,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로 확대되어갔습니다.

루터는 1537년에 직접 기안한 슈말칼덴 조항 「교회에 대해서」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파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지도 않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은 7살 어린 아이들도, 교회가 어떡해야하는 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거룩한 신자들이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나는 믿는다』 라고 기도한다.  
그 거룩함은,  
긴 하얀상의 (서플리스)나, 체발(머리를 깎음), 장백의(알바),  
또는 기타 여러가지 의식등,  
그들이 성경을 벗어나 만들어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루터는 교회라는 것이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룩한 신자」들로 이루어진다고 정의 했습니다.  
로마교회의 자못 성직자스러운 복장이나 과장된 「의식」, 즉 성경을 벗어나 만들어진 것들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실된 믿음」이야말로 「신자」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수많은 관례, 관습인 「교황의 가르침」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황제의 이교적인 제사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세속적인 처리와 판단에 관한 가르침이 분명하다」고 단죄했습니다.

이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교황의 가르침」을 기초로,  
「교회의 의식이나 복장, 음식, 집무자, 아희(아이들 놀이)에 관한 것들,  
걸치레, 그리고 터무니없는 행위에 관한,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지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에는 그리스도나 믿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은 그 어떤것도 하나도없다」,

즉, 로마교회의 관례, 관습에는 어느것 하나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교만은 점점 심해져 정점에 달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미사나 연옥, 수도생활, 자기행위와 예배에 관한 거짓을 믿게하며,  
(이것이 그야말로 교황제도이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만행을

찬양하고 존경을 표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마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를 우리의 주 또는 신으로 섬길 수 없도록,  
악마의 사도인 교황, 즉 반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또는 주로 지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루터는 교회에 들어오는 이세상의 다양한 이교도적인 세속화와 싸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루터한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로마 교회의 전승이나 관습들은, 하나님을 가리는 악마의 연막작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게 하는 잡음이며, 소음입니다.

아무리 현란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장엄하더라도 쓸데없는 장식일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예수님은 예수님을 목자로 하는「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않은,

즉 예수님의 양이 아닌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양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여듭니다.

자신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부름 받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악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음성에 따릅니다.

루터는  
「위선자와 악인이 이세상에서는 교회와 섞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도,  
이름과 외견으로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 속은 악마이며 반그리스도의 회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원칙으로 일어나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진정한 교회와, 이를 대적하는 악마의 쫓겨난 자들이 혼동되어져 있습니다.  
보리와 독보리가 섞여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도 주의 양과 악마의 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갖고 들어옵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들여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섞여져있는지 성경의 원칙을 생각지않게 하고, 세상의 기준처럼 구하게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거는 사회에서도 통하지않는다」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교회는 좀 어리숙하다, 세상물정을 모른다」  
「너무 뽐뿌한짓은 하지않았으면 한다」  
「그렇지않아도, 크리스찬이라는 걸로 눈치가 보이는데」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선교를 했으면한다」

이 같이, 사회를 기준으로, 사회의 척도로 교회를 잽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선교같은거는 원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몇번이나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전도를 하면 돈을 번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이익이 생긴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희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희생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위한 희생은 주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신앙과 선교가 죽음과 즉결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위에, 눈에 보이지않는 높디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낮은 곳에서는 악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밤낮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없애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연막작전과 앞을 볼 수 없게하는 빛으로 하나님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 악마적인 원리, 악마의 가르침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처럼 구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 있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일부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교회에서 소용돌이 치는  
악마가 퍼뜨리는 모든 소음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 듣고 따라가야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